

# 전국금속노동조합 평등수칙

함께해요  
금속노조



## 전문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입니다. 동지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해방 세상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 위한 성찰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온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sup>1)</sup>를 가집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모든 동지들에게 안전한 활동공간이 자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평등수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2023년 여성조합원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점검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 동지들 사이의 관계

- 1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배려합니다.
- 1 서로를 부를 때 '동지'라 하고, 대화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반말은 하지 않습니다.

## 분업

- 1 우리는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고정관념에 갇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 1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업무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다름에 대한 존중

- 1 장애가 있는 동지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1 우리 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존재의 존엄을 확인시켜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견없이 존중합니다.
- 1 동지의 외모는 개성으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예뻐졌다, 잘생겨졌다)이나 신체 변화에 대한 건강 우려(살이 빠졌다, 찼다) 때문에 하는 말도 듣는 이에겐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 1 술은 강요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며, 뒷정리는 함께 합니다.
- 1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 문제제기를 대하는 태도

- 1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동지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 1 동지가 나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는 상황은 불편하지만, 문제제기를 한 동지는 더욱 불편한 시간들을 인내해 왔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1)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제8장 110조 ①항